

수도권서 '평창가는 길' 쉬워진다

“광주~원주(제2영동) 민자고속도로”착공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도권 중부 제2종부 고속도로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으로 연결되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는 11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56.95km로 민간자본 1.2조원 규모를 투입해 2016년 11월에 완공(왕복4차로)할 계획이며,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1.08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고

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

가 연결됨으로써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의 접근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할 경우 통행거리로는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15km 단축되며 통행시간은 현재보다 23분정도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약 5조원, 2010년 불변가기준)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월, 동광주, 흥천, 대신, 동양평 IC의 경우 주변지역 접근성이 제고되어 월송관광단지, 원주기업도시 등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년 평창동계올림

픽을 대비 인천공항 및 수도권에서 평창까지의 최단거리 도로로서 교통 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통해 매년 2만3천톤의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유도하여 연간 약 150억원(광주~원주 기준)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친환경 녹색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시 4대강중 한강의 랜드마크로서 복합 휴양공간이 조성되는 남한강 여주의 이포보와, 친환경 생태녹지 공간으로 재조성되는 여주 강남섬 등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이 없고 통행료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앞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로서 MRG가 반영되어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증가 등으로 MRG가 사라질 전망이다. 2010년 이후 MRG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등으로 2015년경에는 교통량 증가 등으로 MRG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금융약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됨으로써 추후 추진될 타 민자고속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자사업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2.9%인상

5년만에... 철도운임 서민부담 감안 소폭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합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을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출퇴근 합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합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어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출퇴근합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민속대 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에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하여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합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국토부관계자는 “2006년 이후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凍결해 왔으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

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합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요금체계 개편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 등으로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 l 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서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되어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금년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4년간 증가한 비용 중 동력비, 유류비 등 물가 관련 직접비용만 반영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2.93% 수준으로 억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더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중국 3공장 투자협약서 체결



기아자동차가 늘어나는 중국 자동차 산업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중국 시장 내 지속적인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제 3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2일(현지 시각)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위치한 진링호텔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회사관계자와 장쑤성 뤼즈쑤ن 서기, 엔청시 자오펑 서기, 엔청시 웨이귀창 시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평위대기아 3공장 투자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기아차는 이번 중국 3공장 투자

협약서 체결식을 통해 기존의 1, 2공장 43만대 생산체제에서 제 3공장 30만대를 추가하여 총 73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현재 1, 2공장에 이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제 3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의 생산 능력(100만대)과 합쳐 총 173만대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사진 중앙)은 “제 3공장건설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뛰어난 품질의 자동차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업계 최초 ‘IT Innovation’ 대통령표창 수상

현대건설이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1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그린(Green) IT 확산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Green IT 보급 및 활용 단체부문’에서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IT Innovation 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진흥원이 주관하는데, IT 혁신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기여한 기업, 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정부 포상으로,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대상(大賞)인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건축 및 주택부문에서 Green 에너지에 IT 기술을 융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신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적용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및 Green IT 보급 및 활용에 크게 기여했다. 2008년 국내 최

초로 Green IT 기반의 지하주차장 LED 조명시스템을 개발, 지하주차장 조명으로 사용되는 형광등을 친환경 소재인 LED로 대체해 전력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Green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하주차장 조명 에너지를 최대 60%까지 절감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인천검단 힐스테이트 2차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 2만여 세대 지하주차장에 적용돼 연간 10,000MWh의 전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2010년에 개발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시스템 HEMS는 단순 검침 및 모니터링만으로 제한돼 있던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Green IT 기술을 활용한 능동형 제어 시스템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가정 내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 체크,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동제어를 통해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워크숍 개최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최승호)는 지난달 29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서울 분회 및 지방 11개 전지회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전체 임·직원이 참석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협회발전 및 ‘회원서비스 증대방안’이란 주제로 현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장내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승호 회장은 “건설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위상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협회에서는 적극적인 건설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해 회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건설금융의 Best Value Partner

당신이 건설만 생각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건설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당신의 일은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당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더 든든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건설금융의 Best Value Partner
전문건설공제조합